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정

2004 가을호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풍성한 경북의 가을축제와 함께 하세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북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축제는 물론 주민회합을 다지는 체육대회,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특산물 축제,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체험행사 등 풍성한 축제의 마당이 펼쳐진다.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경북으로 오세요!”



Contents

autumn

- 2** 제5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중국 흑룡강성에서 열려
•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 6** 「대구 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개최
• 경북을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
- 8**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전국 최다” 선정
• 혁신특별사업 포함 18개 사업 총 124억원 국비 확보
- 10** 장애인에 희망을... 전국 최초 장애인 공무원 구분채용
• 전국최초 장애인 공무원 구분채용 큰 성과, 전국에서 벤치마킹
- 11** 경북수출, 날개 달았다
• 6월말 현재, 경상도 수출액 165억5천만불로 전국 3위 기록
- 12** 경상북도, 일본 오키(OKI)사와 투자협정 합의
• 세계적인 기업의 연이은 투자유치 성공
- 14** 도정이모저모
• 2004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개최
• 농업·농촌사랑 실천을 위한 「도·농상생 경북네트워크」
•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안동시 낙동강둔치에서 개최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첫 이사회 개최
• 세계적 전기·전자 선두주자 Siemens사, 경주에 글로벌생산기지 설치
- 19** 도정단신
- 20** 알아줍시다
- 21** 건강이야기 -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요통
- 22** 가 볼만한 곳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 24** 경북의 맛 - 영주 메밀묵밥
- 26**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4 가을호(통권362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이의근 / 편집인 : 김재홍

발행일 : 2004년 10월 15일 / 인쇄처 : 흥익출판인쇄사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950-3058, 2031 FAX. 956-4926

표 지 : 제5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총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

국내 최초 국제기구 본부 유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국가목표의 지방적





상설사무국 유치

실현



경상북도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상설사무국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5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총40개 회원단체중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27개 회원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참석 회원단체의 만장일치로 상설사무국의 경북 설치를 결의했다.

이번 상설사무국의 경북유치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한 것으로써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의 지방적 실현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은 물론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중심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시장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의근 도지사는 수락인사를 통해 “상설사무국 설치결정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며, 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설사무국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원단체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히 할 것이며, 싱크탱크 역할을 할 동북아연구소를 설립하여 연합의 장기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 결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상설사무국은 연합이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제기구의 본부성격으로서의 상징성은 국가 이미지 향상과 경북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합활동을 주도해 나갈으로써 실질적인 역내 투자통상 증진이 기대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회의와 회원단체간 비즈니스 활동이 빈번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의근 도지사는 이번 총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총회 첫날 일정을 마치고 함경북도와 나선시의 대표를 만나 남·북간의 교류협력방안과 경북과의 우호교류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더욱 교류를 늘려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방문, '동북아 경제통합 방안' 특별강연

이의근 도지사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 참석에 앞서 9월 2일부터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군사의 중심지인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극동지역 명문대학인 국립 하바로프스크 경법대학의 초청으로 교수·학생·각계 지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동북아 경제통합 방안'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위한 단계적 접근전략과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을 역설하였다.

한편, 하바로프스크 경법대학에서는 이의근 도지사에게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하바로프스크 지역의 산업과 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지역교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6일에는 이사예프 빅토르 이바로비치 하바로프스크주지사와 회동을 갖고 양 지역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 영하회족자치구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총회 하루전 흑룡강성에 도착한 이의근 도지사는 시마네현, 영하회족자치구 등 회원단체 대표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상설사무국 경북유치의 지지를 요청하고 상호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중국 영하회족자치구와는 마계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영하회족자치구는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소수민족 자치구로, 전체 540만명의 인구중 회족이 1/3에 이르며, 소수민족 중에서는 그 수가 비교적 많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하지역은 석탄, 동, 석유, 석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써 경상북도와는 활발한 경제교류가 기대된다. 



경북을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

‘3대 비전’ 과 ‘4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상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보고



경상북도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역혁신체계구축, 전략산업육성, 지연산업육성, 지방대학육성 및 인력양성,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등에 총 4조2천762억원을 투자, 경북을 명실상부한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의근 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 포항공대에서 개최된 「대구 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경상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보고를 통해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표명하였다.

이날 행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경북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오명 과학기술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부처 장·차관과 이의근 도지사, 조해녕 대구시장, 대구 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제시한 3대 비전은 첫째,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북이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혁신거점이 되고 둘째, 초고밀도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북지역산업의 전방위 선진화를 이루며 셋째,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체제를 갖추어 환동해경제권의 전략적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해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과 특성을 토대로 4대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구미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비교우위의 전자 정보기기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포항을 신소재분야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신소재 부품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의 청정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 한방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신산업지대로 부상시키며, 경북이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6개 산업 12개 품목을 발굴 선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디지털 TV/방송(1), 디스플레이(3), 지능형로봇(2), 차세대반도체(1),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3), 바이오 신약/장기(2) 등이다.

그리고, 인삼기술 마케팅 네트워킹사업, RFID(무선표시시스템)산업혁신 기반사업 구축, 지역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식품 산업지원체계구축, 지역 한약자원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화 등을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기업, 연구소,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초광역단위인 대구 경북지역혁신협의회를 창립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관련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의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군 및 권역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도 활성화하여 상호 긴밀한 혁신네트워킹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업무와 지역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토론회 참석 이후 포항가속기연구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제3세대 방사광 보다 100억배 이상 밝은 빛을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내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X-선 자유전자레이저형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건의를 받고 적극 검토를 약속하였다.

경상북도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0년 경북은 1인당 총생산(GRDP)이 1만6,000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허 등 기술혁신발생율은 현재 전국의 2.5%에서 10%대로, 과학기술인력은 현재 3.8%에서 6%대로 늘어나 R&D혁신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경북도의 혁신발전 청사진’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권의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물류기반 구축과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북부지역의 생물·한방산업 육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RFID (무선 식별 시스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무선 방식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그네틱이나 바코드 등은 특정 표시가 필요하고 훼손이나 파손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률이 점차 떨어지나 RFID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RFID가 기존의 바코드 및 마그네틱 카드 시장을 급속히 대체하면서 출입 통제를 비롯해 출퇴근 관리, 물류 관리 및 주차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혁신특별사업 포함 18개 사업 총 124억원 국비 확보

‘선택과 집중’ 전략 입각해 임베디드 S/W산업 관련 프로젝트 집중 선택

경상북도가 최근 참여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모에서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잇달아 선정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공모에서 대구·경북 공동으로 경북테크노파크가 신청한 “R&DB 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 임베디드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사업이 혁신특별 사업중 하나로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시·도별 권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혁신 기반사업으로 대구대의 “경상북도 RFID 혁신기반 구축사업”과 생물분야인 동양대 ‘인삼기술·마케팅·네트워킹’, 안동대 ‘지역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식품산업 지원체계구축’, 대구한의대 ‘지역 한약자원 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화’ 등 3개 단위사업을 콘소시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북 북부 생물산업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포럼활동 지원사업은 포항공대의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에 따른 포럼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는 최근 경상북도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사업단이 선정된 것에 이어, 산업자원부의 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 구미 전자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지정,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구미 「IT협동연구센터 설립지원사업」 선정 등과 함께 경북도가 이룬 쾌거이다.

이처럼 경상북도가 각종 지역혁신발전 공모사업에서 연이어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 산·학·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성장동력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사업설명회에는 반드시 이의근 도지사가 현장에 참석하여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공동으로 구성·운영중인 『지역혁신협의회』의 취지를 살려 가급적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대구시의 대학, 연구기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은 물론, 반드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통합과 개방을 선호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의도에도 부합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서 선정된 「R&DB 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임베디드산업을 중심으로」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영남대, 경북대 등 7개 대학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26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2004년부터 3년간 총 191억원을 투자, 디스플레이·전자부품·모바일·섬유·멀티미디어·자동차부품·기계·제어 등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임베디드S/W 관련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입각하여 임베디드 S/W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집중 선택하여 선정됨으로써 구미~칠곡~대구~경산~영천~경주~포항을 연계하는 임베디드 클러스터를 형성, 경북이 “전국 제일의 임베디드S/W산업”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최초 장애인 공무원 구분채용 큰 성과, 전국에서 벤치마킹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통해 33명 채용

경상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27명의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에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채용 시험을 실시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지난 7월 28일 최종 합격된 33명과 가족 등을 한자리에 모아 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7월 29일 도청강당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 송순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심의관, 김선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장, 김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분위기 속에서 합격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앞서가는 우수시책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체까지 격려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문의전화의 쇄도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결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함과 아울러 시·군 근무 공무원의 도 전입시 「장애인 10%할당제」 실시 등 공직참여와 사회활동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경북수출, 날개 달았다

6월말 현재, 경북도 수출액 165억5천만불로 전국 3위 기록

경상북도의 올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4년 6월말 현재 경북도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7%가 상승한 165억5천만불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전국 평균성장률 38.4% 보다 약 9% 높은 수준으로 IMF 이후 최고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수출순위에서도 올해 상반기 서울을 제치고 전국 4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으며, 월별 수출실적 또한 3~4위를 유지하다가 6월 들어 처음으로 울산과 서울을 제치고 2위로 뛰어 올랐다.

이러한 증가세라면 올해 수출목표 300억불의 10%를 넘어선 330억불의 수출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 경북도의 수출을 이끈 주 업종은 전기전자(42.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103.5%), 기계류(69.5%), 철강금속(46.6%) 등이며, 품목별로는 무선전화기(43%), 모니터(28.2%), 컴퓨터부품(66.3%), 칼라 TV(52.3%), 무선통신기기부품(88.6%), 열연강판(182.5%), 광학기기부품(3,682.2%) 등의 순으로 도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괄목할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6%가 늘어난 47억5천만불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6월말 현재 59.5%가 늘어난 34억3천만불을 기록하는 등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업종별 수출실적은 전자전기(91%), 철강금속(94%), 기계류(510%) 순으로 전체 수출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부품(209%), 컴퓨터부품(145%), 열연강판(157%), 광학기기부품(6,308%), 모니터(73.5%)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해외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시장개척단 파견(중동, 중국, 서남아), 박람회 참가(뉴욕, 상해), 중국비즈니스전문가과정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을 집중공략 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마케팅사업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도내 수출중소기업체의 해외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12 경상북도, 일본 오키(OKI)사와 투자협정 합의

경상북도 · 구미시와 OKI社 · (주)LG 간 투자협정 합의서(MOA) 체결 2004. 7.



세계적인 기업의 연이은 투자유치 성공

일본 정보처리, 전자장치 분야를 선도하는 오키(OKI)사 1단계 총 1200만불 투자

경상북도는 일본 50대 기업중 하나로 정보처리와 전자장치 분야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 오키(OKI)사와 총 1,200만불의 경북투자를 위한 투자협정합의서(MOA)를 7월 29일 도청 1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투자협정합의서 체결에는 이의근 도지사와 김관용 구미시장, 그리고 오키사에서 키타야시 히로노리 실리콘 메뉴팩처링 사장, (주)LG에서 정도현 상무, 김동찬 루셈사장, 이한상 상무 등이 참석하였다.

일본 OKI사와 (주)LG가 총 1,200만 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루셈(LUSEM)을 설립하는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TFT-LCD 모듈 공정 가운데 핵심기술인 TFT-LCD 패널 드라이버 IC인 LDI(LCD 구동


칩)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는 LG필립스LCD와 오키사가 LCD 세계시장의 폭발적인 수요확대에 따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는 그동안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지역 경쟁력산업인 LCD와 연관된 목표기업을 선정 물밑작업을 벌여온 일본의 우수 부품소재기업중 하나로서, 이의근 도지사와 김관용 구미시장이 지난 6월 8일 직접 대일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 오키사 관계자와 LG필립스LCD 관계자를 면담하고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최종적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경상북도는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 7,600여평 부지를 50년간 제공할 방침으로, 특히 공장부지의 위치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아래 루셈이 원하는 위치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오키사와 (주)LG로부터 신뢰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투자결정으로 오키사는 그동안 LG필립스LCD 수요량의 40%를 담당해온 기존의 수출을 통한 공급방식에서 LG필립스LCD 인근지역(구미4국가공단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공급함으로써 공급확대는 물론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가지며, LG필립스LCD는 그동안 LCD 구동칩에 대한 일본 오키사로부터의 수입방식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LCD생산공정의 수직계열화와 비용절감을 통한 세계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경상북도는 2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LDI의 기술도입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북도는 오키사와 (주)LG의 투자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2단계 등 추가투자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LCD 부품소재산업의 투자유치 성공은 아시아 최대의 내륙 IT산업기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IT산업클러스트 육성계획'에 부응하는 것으로 구미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개최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금리를 현 5.7%에서 전국최저인 4.3%로 인하




경상북도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성장잠재력과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10개 업체를 「2004년도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도내 각급 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단체, 업계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서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일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장·군수와, 지역상공회의소회장 등으로부터 21개 우수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1차 서류심사와 및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2차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 구미시 소재 (주)성우프린텍 등 10개 업체가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세계일류 중소기업」지정 및 육성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개 업체씩 100개 업체를 선정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올해가 아홉 번째로 총 90개 업체가 지정되었다. 

경북-부산-울산-강원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창립총회 개최

경상북도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한류 열풍 등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울산·강원 등 동해안권 인접 3개 시·도와 함께 「동해안권 공동 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 시·도 관광담당국장, 민간연구원, 관광협회임원, 여행사 대표 등 총30여명으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9월 1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시·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해외홍보설명회 공동개최, 상호 관광정보교환 등 공동 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업·농촌사랑 실천을 위한 「도·농상생 경북네트워크」 발족 「도·농상생 교류 촉진대회」 개최, 기업체와 농촌마을 등 65개팀 자매결연 체결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FTA 체결과 쌀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학계, 언론계, 종교계, 기업체, 시민단체 및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역인사 3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도 농상생 경북 네트워크」 발족식을 7월 6일 도 농업인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도·농상생 경북네트워크」는 9월 1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의근 도지사, 허삼만 농림부장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서성욱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기업체, 농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상생 교류 촉진대회』를 개최, 기업체·학계·종교단체와 농촌마을간 4개 그룹, 8개 팀이 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농협 주관으로 기업체와 농촌마을 57개 팀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포항과 경주 일원에서 개최 우리나라 최초 개최로 과기도로서의 위상 더욱 높여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가 73개국에서 1,000여명의 세계과학영재와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과 경주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7월 16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의근 도지사, 오명 과학기술부장관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7월 24일까지 9일간 각종 실험과 경시대회,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물리학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세계 청소년들을 조기 발굴 육성하고, 국제 친선과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안동시 낙동강둔치에서 개최 농업위기 극복 위한 다양한 학술회의와 화합의 장 마련



제9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이의근 도지사, 허상만 농림부 장관,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각 시·도 관계관과 전국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3만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을 우리 손으로, 농촌을 우리 가슴으로!” 라는 주제로 안동시 낙동강 둔치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쌀산업 발전전략 지역토론회, 농·축협개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방안, 농업인력 육성의 장기비전 제시 등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대


동놀이한마당·안동유교문화 관광투어·주부씨름대회·어린이 백일장·가족들을 위한 민물고기잡기 체험 행사 등 회원간의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중국 하남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왕유걸 부주임 일행 방문 양도-성간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의견 교환



경상북도와 자매도시인 하남성의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왕유걸 부주임 일행 13명이 8월 20일 경상북도를 방문, 도정현황을 청취하고 이의근 도지사와 양도-성간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의근 도지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친선교류를 기초로 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아갈 것이며, 2005년에는 양도성간 자매결연 10주년을 계기로 교류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하남성 왕유걸 부주임도 답사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성 산림조림 시범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첫 이사회 개최 농생물 등 첨단바이오산업육성 기반 조성



경상북도는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과 북부지역 농생물산업 기술혁신의 기반이 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첫 이사회를 8월 27일 안동파크호텔에서 개최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해 김휘동 안동시장, 이정백 도의회 부의장과 안동대, 상주대 등 지역 대학총장, 산업자원부 관계자 등 13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였으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재단 운영규정, 장비도입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

결하였다.


한편 지방바이오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오는 2008년까지 안동시 풍산읍에 30만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는 관련 기업을 집적시켜 안동대·상주대 등 지역대학의 연구개발역량이 결집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무협조약정 체결 통상진흥과 투자유치활동에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키로



이의근 도지사는 7월 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사장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조약정으로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사업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품의 해외진출,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지역내 유치 등의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으며, KOTRA의 국내외 무역관을 통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리더 자치단체로서의 경상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 투자관련 기술 정보의 공유 및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OTRA는 100% 정부가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 74개국에 8개 본부와 102개 무역관을 운영하는 등 국내 최대의 해외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세계적 전기·전자 선두주자 Siemens사, 경주에 글로벌생산기지 설치 첨단의료장비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세계적 명성의 전기·전자 솔루션 선두주자인 Siemens가 국내 초음파 탐촉자 생산기업인 프로소닉(주)와 공동으로 합작투자법인 초음파기술주식회사(UTL, Ultrasonic Technologies Ltd.)를 설립, 9월 14일 경주 건천농공단지에서 이의근 도지사, 백상승 경주시장, 김달웅 경북대학교총장, 클라우스헤르초그(Klaus Herzog) 독일 참사관 등 1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용초음파진단기 생산시설 경주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초음파기술주식회사(UTL) 경주공장은 연 400억원 규모의 초음파 영상 진단기용 초음파 탐촉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은 전량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Siemens울트라 그룹(Siemens Ultra Group)에 수출된다.


또한 올해 2천만불, 내년에는 4000만불의 매출이 예상되어 현재 100명 규모인 생산·연구 인력을 내년 말까지 200명으로 증원하고, 40% 정도인 부품 국산화율도 점차 높여 100% 현지 수급을 통해 원가 절감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에서는 Siemens사의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추가투자를 유도하고, 첨단의료장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유치 성공 향후 5년간 1,000억 이상 투입

경상북도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나노기술집적센터」유치에 성공했다. 산업자원부는 7월 9일 '나노·반도체위원회'를 열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00억원 이상 국비가 투자되는 「나노기술집적센터」사업자로 포항공대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유치과정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시 대통령에게 지역여건과 유치의지를 설명하였으며,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각종 보고회와 관계기관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쳤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경북나노플랜 2010」을 마련, 이를 기초로 나노기술집적센터 분소 설치·나노기술의 대중화 실현·나노융합기술 벤처기업 집중 육성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첨단 산업중심으로 재편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방사광가속기,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탁월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이 R&D 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으로 문화유산 이해 높여

경상북도는 도내 관광지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해설사’ 49명을 신규 양성하여 도내 문화유적지에 배치하였다. 이번에 배치한 문화유산해설사들은 지역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안동, 고령, 경주에서 각각 4일간 실시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거쳤다. ☞

산림지리정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경주조선히otel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국산림지리정보 경진대회」에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인 산림정보원격탐사시스템을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림정보원격탐사시스템이란 원격탐사 기법으로 산림항공사진, 임야도, 임상도,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한 산불진화 지휘는 물론 질 높은 각종 산림정보를 도민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경상북도에서는 KOTRA 대구·경북무역관과 함께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2004년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와 연계하여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경주현대호텔에서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등 13개국에서 엄선된 총 80여개사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경상북도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가족보건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8월 20일, 21일 양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가족보건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2004년도 전국 가족보건사업 평가대회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세미나에서 모성과 어린이 건강 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차세대 건강한 도민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가족보건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보건사업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 ☞

약초재배 주산지 마을 찾아가서 교육

경상북도와 대구가톨릭대학교 한방바이오산업육성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시·군별로 약용작물 재배현지에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약용작물재배교육을 실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농업기계 전문교육시설 농기계교육관 개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회관 옆 1천평의 부지에 강의시설, 정비수리 시설 등 지상 2층 연면적 267평 규모의 농기계교육관을 완공, 7월 29일 각급 농업인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앞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의 운전 조작과 보관 관리, 정비수리 등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게 된다. ☞

기업애로사항 직접 듣고, 신속 해결 위한 '기업애로 해소센터' 설치, '인터넷 사이트' 개설

경상북도는 내수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노동과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 도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기업애로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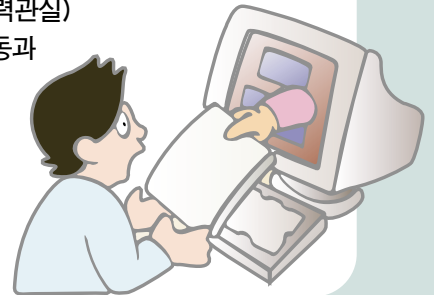
기업애로해소센터는 기존의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확대·개편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시 행정절차의 복잡성, 제출서류의 과다, 처리시간 지연 등 일반적인 불편사항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법규정 등 제도와 법령개정 사항 등 기업의 창업 및 운영에 따른 모든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있다.

기업애로해소센터 이용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신고방법

- 인터넷 : www.gb.go.kr(경북도청) → 기업애로해소센터
- 직접방문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도청 기업노동과(경제협력관실)
- 우 편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도청 기업노동과
- 팩 스 : 053-950-3249
- 상담전화 : 053-950-3581

(담당부서 : 기업노동과 053-950-3581)



'위기가정 SOS상담전화' 1688-1004 개통

경상북도는 건강한 가정생활지원과 가정문제의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학대·폭력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정 상시 신고 및 긴급보호를 위하여 「위기가정SOS상담전화」1688-1004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SOS상담전화(1688-1004)는 어디서나 전화를 걸면 발신지역의 시·군·구 SOS상담원에게 연결되어 위기가정에 대한 1차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와 민간단체 등에 연계해주고 있다

상담원은 사회복지 및 상담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기가정 SOS 전담공무원이 지정되어 상담과 안내를 해주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 또는 상담원의 이동전화로 연결되어 24시간 운영된다.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가 척추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

무더운 여름이 지났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준비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몸을 움직이다 생 각지도 못한 허리통증, 즉 요통을 느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요통은 일상생활 중 사람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통증의 하나로, 어떤 통계에 따르면 약 80%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요통으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요통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척추와 이에 속한 부속조직에서 발생하는 것과,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서 생긴 질환이 허부요추에 관련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 심인성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는 척추와 몸체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을 받아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며, 가장 흔한 척추질환이다. 그리고 척추뼈 자체의 종양, 염증, 외상, 선천성 이상 및 척추분리증, 척추전방 전위증 등의 골성 원인도 있고, 척추를 지지하는 수많은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도 요통이 유발될 수 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집에서 기둥이 하중을 견디고 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듯, 척추도 몸의 안정성과 균형을 이루는 핵심역할을 한다. 건강한 척추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런 균형상태가 깨어졌을 때 척추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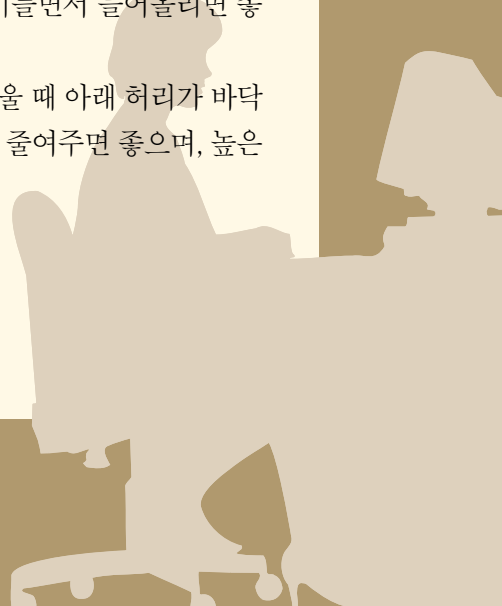
척추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반복되는 작은 외상이 쌓여지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가 척추질환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먼저 앉는 자세가 중요한데 바닥이 딱딱한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허리를 똑바로 편 상태에서 등받이가 허리를 받쳐주는 것이 좋다.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발 밑에 받침을 두어 무릎이 둔부보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 척추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는 목이나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에서 구부러지도록 하며, 운전할 때는 운전석을 되도록 앞으로 당겨서 앉아 무릎이 구부러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건을 들 때는 허리만 굽히지 말고, 고관절과 무릎을 같이 구부려 들어야 하며 물건을 몸통에 바짝 붙여야 한다. 허리보다 높게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허리를 비틀면서 들어올리면 좋지 않다.

누울 때는 너무 폭신한 침상은 피하고,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눕는다. 누울 때 아래 허리가 바닥에서 많이 뜨는 사람은 똑바로 누울 때 무릎 밑에 베개를 깔아 허리 곡선을 줄여주면 좋으며, 높은 베개는 피하고 엷드려 자는 것은 금물이다. 



박물관에서 나무와 숲을 만나다!

생명자원의 보고, 산림의 소중한 일깨우는 배움의 장

나무와 숲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너무나 소중한면서도 쉽게 잊고 지내던 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한 배움의 장으로 활용될 산림박물관이 탄생했다.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안동호반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은 경북산림과학박물관이 바로 그 곳이다.

경북산림과학박물관은 자연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상북도가 국비와 도비 등 194억원을 들여 조성한 6만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5월 25일 개관하였다. 산림박물관으로는 강원과 경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박물관의 앞뜰에는 상징조형물을 비롯해 12지신상, 산림녹화기념비와 연못, 물레방아, 장승, 성황당, 너와집과 굴피집 모형, 야생화동산 등을 잘 꾸며 놓았다.

박물관 내부에는 일반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4D 입체 영상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전시실은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제1전시실은 '산림역사 문화탐방 지구환경', 제2전시실은 '숲속 생태기행', 제3전시실은 '숲과 나무', 제4전시실은 '생명과 숲'이라는 주제로 희귀나무와 자연석, 사료가치가 있는 목공예 가공품, 임업관련 고서 원본과 학술·행정·기술서적·사진·그림과 임업발전에 공헌한 인물자료는 물론 1970년대 기계식 톱 등을 갖춘 제재소와 원목샘플 등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전시품은 총 8,000여점으로 한 자리에 모두 전시할 수가 없는 이유로 그 중 800점 정도씩을 번갈아 가며 전시하여 매 시기마다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는 4D 입체 영상실에서는 바람이 불고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특수효과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6분짜리 영상물 ‘나라와 준의 초록별 모험’이 상영되고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들 4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4D 입체 영상실, 체험공간 등 박물관을 돌아보는 데는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가 소요된다.

입장료는 19세 이상 어른 1,500원,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은 1,000원,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는 500원이며, 단체입장은 각각 100원, 500원, 300원으로 할인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경상북도에서는 2006년까지 박물관 주변에 15만평의 야생동물 생태관찰원과 15만평의 소득식물 생태숲, 15만평의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수중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물관 인근에는 퇴계 이황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유명한 도산서원과 진귀한 국학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한국 국학진흥원, 고려시대 왕명으로 지어진 사찰인 용수사 등 많은 볼거리가 있다. 주변의 안동호반과 물오른 가을 산의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것 또한 즐거운 가을나들이에서 얻을 수 있는 덤이다. 





성인병과 복부비만 예방 효과로 현대인에 맞는 “웰빙식품”

메밀, 좁쌀, 무, 묵은 김치 등 어우러져 식이성 섬유소 다량 함유




소백산에 가까운 영주시 순흥면에 가면 향토음식으로 메밀묵밥이 유명하다.

메밀묵밥은 가마솥에서 장작불로 정성껏 쑤어낸 메밀묵을 길이로 채 썰어 담은 위에 묵은 김치를 총총 썰어 올리고 무, 파, 깨, 김가루 등을 듬뿍 뿌려 다시마·멸치로 우려낸 육수를 부어내는 묵말이와 조를 섞어 지어낸 밥을 함께 내놓는다. 단백한 묵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송덩송덩 썰어 양념장에 찍어먹는 골패묵을 선택해도 좋다.

영주에서 묵밥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악지역이 많은 경북 북부 지역의 척박한 땅과 협소한 경작지로 인해 예로부터 보리와 좁쌀, 메밀과 같은 잡곡류를 많이 재배해왔고, 이 같은 이유로 좁쌀, 메밀 등을 주식 대용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 메밀묵밥을 많이 해먹게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메밀은 비장과 위장의 습기와 열을 없애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므로 체기(滯氣)가 있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민간요법으로는 여성의 대하증과 몸의 열에 의해 생기는 부스럼에 효과가 있으며 건망증과 치매에 좋다고 했다. 또 메밀이나 메밀의 껍질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자면 풍(風)과 습(濕)을 다스려 숙면을 할 수 있다며 베개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메밀묵에 같이 내놓는 조밥은 단백질과 지방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다. 또 비타민 B1, B2가 많고 맛이 달아 대장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오래된 속병을 다스려주며 혈당을 조정해주고 황달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메밀과 조는 둘 다 성질이 차 음식궁합이 맞는 것도 묵밥이 좋은 이유이다.

무엇보다 메밀묵밥은 각종 성인병과 특히 복부비만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메밀과 좁쌀, 무, 묵은 김치 등이 어우러진 음식인 만큼 식이성 섬유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이다. 이렇듯 메밀묵밥은 옛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제7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에 이철우 의원, 부의장에 손규삼, 이정백 의원

경상북도의회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190회 정례회를 개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2003년도 결산검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7월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및교육청소관2003년도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넘겨받아 각 실국별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9일 본회의를 열어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7월 5일에는 제7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이철우(청도) 의원, 부의장에 손규삼(포항) 의원, 이정백(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7월 9일에는 2년의 임기로 시작되는 후반기 상임위원 배정 및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는 행정사회위원장 나중택(고령) 의원, 교육환경위원장 정보호(구미) 의원, 농수산위원장 이용석(구미) 의원, 산업관광위원장 채희영(문경) 의원, 건설소방위원장 박영화(고령)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안순덕(의성) 의원, 기획위원장 이원만(포항)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



의 장 단



이철우 의장



손규삼 부의장



이정백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순덕 의원

- 간사 박승학 의원
- 위원 정무웅, 김순견, 이호근, 박승학, 장미향, 황복희

[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원만 의원

- 간사 김병진 의원
- 위원 정무웅, 권경호, 최영욱, 장하숙, 권종연, 장찬식, 김병진, 양재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종택 의원

- 간사 황상조 의원
- 위원 이상천, 박경동, 장대진, 방대선, 황상조, 황복희, 김석호, 손경찬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 정보호 의원

- 간사 김성하 의원
- 위원 김선종, 박종욱, 이 달, 김순견, 김응규, 김준호, 김성하, 권준택, 장미향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용석 의원

- 간사 정상진 의원
- 위원 손만덕, 손규삼, 이상호, 신영호, 박승학, 방유봉, 정상진, 강영서, 김주연

[산업관광위원회]



위원장 채희영 의원

- 간사 한혜련 의원
- 위원 최원병, 이정백, 박두필, 김희문, 우성호, 한혜련, 김정기, 임원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영화 의원

- 간사 장 욱 의원
- 위원 안순덕, 김기대, 이종철, 윤경희, 김정자, 이호근, 장 욱, 이현준

제7대 후반기 개원 기념식 개최



7월 9일 7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함께 간사 선임에 이어 본회의장 로비에서 제7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이철우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등 전 도의원과 이의근 도지사, 도승희 도교육감 등 도내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제7대 후반기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이덕천 대구시의회의장 환담



7월 14일 오전 10시 경상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이덕천 대구시의회의장이 취임 후 첫 만남의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시도의회 의장은 경북·대구는 역사·문화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가진 지역임을 재인식하고,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양 시·도 의회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술세미나, 체육대회 등은 공동개최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행, 경상북도의회 방문

이철우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충청북도의회 김정복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설치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충북 의회사무처 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경상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비롯한 지역현안 사항과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중국 하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일행 방문

중국 하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유걸 부주임을 비롯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과 하남성 고위 간부 공무원 등 11명이 지난 8월 20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양의회간에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대한 교류 협력할 것을 논의하는 등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의회 지원인사와 경북발전 정책과제 발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7월 13일 의장실에서 제7대 하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함께 도의회에 많은 법률자문과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교수와 2004년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북발전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북발전 정책과제 발표회에서는 2004년도 『경북발전 연구논문집 발간』에 대한 설명, 2004년도 하반기 자문교수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에 대하여, 의원연수회시 지원인사 초청 특강 실시, 급변하는 법조계 상황·정보 공유, 경상북도의회 지원인사 문화·생태기행 등을 논의하였다. 






제191회 임시회 결산

도정질문 및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임시회가 개최하여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과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9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주민투표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13일에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담당할 1년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권경호(영양) 의원을 선출하고, 위원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




위원장
권경호 의원

간사 김정자(비례대표)

위원 권종연(안동), 장찬식(영주), 방대선(성주), 김석호(구미)
박종욱(청송), 권준택(칠곡), 손만덕(군위), 신영호(의성)
이상호(경주), 김희문(봉화), 임원식(울진), 한혜련(비례대표)
이현준(예천)

경상북도의회 초심회 발족

경상북도의회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초심회를 결성, 8월 31일 한나라당 협의회실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9월 13일 창립총회 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정식 발족했다.


초심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으로 앞으로 연구발표와 연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회지 및 논문집,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지방정치에 대한 홍보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들의 스터디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4년도 하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 가져




경상북도의회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교원연수원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04년도 하반기 경상북도의원 의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박규환 상주대 교수의 “농업·농촌 문제의 현실과 개선책”, 박석돈 경북대 교수의 “노인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대책”, 이도상 원광대 전 초빙교수의 “한·중·일 역사분쟁의 쟁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등 연구하는 연수회로 진행되었다. 





김정기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경북·대구 통합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은, 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의 설치 필요성, 고속철도 김천역사의 추진상황과 연계교통망 등 김천·경주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전략은, 제87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김천시에 대한 재정지원과 성공적인 개최 방안 등을 질문했다. 




윤경희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견해, 경북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활성화 방안, 경북과 대구시간의 광역정책개발계획은, 국가간선 도로망계획에 의한 동서 6축인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상황 등에 관해 질문했다. 




정무웅 의원 (기획위원회)

지방5급 승진제도 변경에 따른 승진제도 정착과 제도개선 대책은, 포항 R&D 특구 유치전략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용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과 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 도유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종욱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공공기관 유치 위한 그 동안의 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은, 경북·대구 통합추진을 위한 추진반 구성에 대한 견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종합건설사업소 등의 기구와 인력 증설에 대한 의견, 투자유치 포상금제 개선에 대한 조례제정 이후 실적이 부진한 사유 등을 질문했다. 



박두필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문장대온천 개발이 중단·방치되고 있는데 낙후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상주시 모서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 충북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도의 대책은, 도자기 명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외인지도는 낮은 실정으로 전통도자기 개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질문했다. 



관봉 석조여래좌상

지정번호 : 보물 제431호

지정일자 : 1965. 9. 1

소유자 : 선본사


소재지 :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35

이 불상은 팔공산의 남봉인 해발 850m 관봉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4m에 이르는 장대한 석불좌상이다. 머리에는 두께 15cm, 지름 180cm의 판석이 올려져 있어 마치 갓을 쓴 듯한 모습으로 속칭 '갓바위'라고도 한다. 불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판석을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 후대에 올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광배는 원래부터 없으며, 뒷면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이 광배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체는 떨어져 있다.

소발의 머리에 큼직한 육계가 솟은 얼굴은 둥글고 풍만하며 탄력이 있는데 눈, 코, 입의 표현은 세련되었으며 풍만한 얼굴과 잘 조화되어 있다. 자비로운 미소가 사라진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불

상의 격조를 훨씬 높여주고 있다. 코끝에서 시작하여 입 언저리를 팔자로 깊이 판 것은 당시 시대성과 유풀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마 한가운데에는 큼직한 백호가 뚜렷하게 새겨져서 둥글게 도드라져 있는데, 이것 역시 이 불상의 특징이다. 귀는 어깨까지 내려오며, 굽은 목에는 삼도가 표시되어 있다. 다소 치켜 올라간 어깨는 넓고 반듯하여 당당하고 건강하며, 가슴은 발달되어 풍만하다.

항마촉지인을 취한 손과 양 무릎을 넓게 팽창하여 안정감있게 걸가부좌한 다리 등의 비율도 제격이며 불상의 조각 수법도 뛰어나다. 몸에 밀착된 통견의 법의는 옷주름이 선각으로 평행을 이루면서 형식화되어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비교적 유려하다. 대좌는 사각형인데, 전면에는 평행반원형의 옷자락이 대좌의 앞을 덮고, 그 양쪽 측면에도 옷자락이 내려와 이른바 상현좌를 만들고 있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전반적으로 풍만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경직된 얼굴, 형식화된 선각의 옷주름, 평판적인 동체는 탄력성이 배제된 것으로 8세기의 불상과는 구별되는 9세기 불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정성스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용산산성

지정번호 : 기념물 제134호

지정일자 : 1999. 12. 30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소재지 :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산78 외


용성면의 용산(해발 435m)에 위치하고 있는 테피식 산성으로 경사가 완만한 동남쪽은 돌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경사가 급한 서북쪽으로는 돌과 흙을 섞어 쌓았다.

현재 남아 있는 성의 총 둘레는 1,481m이며, 성 안에는 할석과 흙을 다져서 편축법으로 축조한 약 10~11m의 회곡도로를 만들었다. 경사가 급한 서문지와 남문지 사이의 구간에는 유단식 축조법을 이용하여 성벽의 붕괴에 대비하였고, 북쪽 구간과 동남쪽 구간에는 성의 안팎으로 성벽을 쌓았다.

용산산성의 지표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물지는 없으나, 4대 문지 주위에 문루 등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쪽의 모서리는 장대 혹은 망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태종무열왕 3년(656)조에 "김인문이 당으로부터 돌아와서 군주로 임명되었고, 장산성의 축조를 감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산성이 현재의 용산산성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 산성을 축조한 연대는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경상북도에서
가을의 추억을 탐아주세요!